

틀니 폐금 UNICEF 기부 '빛난다'

일본 치과계 1억5천여만원 모금...1년새 5배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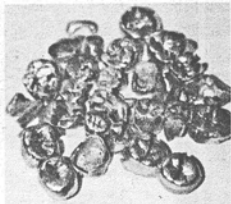
틀니를 사용해 세계 각국 어린이들을 돕는 일본 치과계의 노력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7일 사용할 수 없는 틀니에 붙어 있는 금, 은 등의 금속을 재활용해 유엔 아동기금(UNICEF·이하 유니세프) 등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하 NPO)인 '일본 의치리 사이클(재활용)협회'(이하 협회)에 대해 재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부한 액수는 모두 1천5백만엔(한화 약 1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본지 보도(2007년 4월 30일자 32면 참조) 당시 모금액인 3백30만엔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치과병



원을 중심으로 의치 회수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대형 슈퍼마켓점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현재 전국 25개 지역에 230개 회수함을 개설하는 성과를 올렸다.

의치에 사용되는 금이나 은, 팔라듐이 금속 자체로도 가치가 크지만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반도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는 따르면 이 같은 활동을 통해 1일 평균 50여 개의 틀니가 회수되며 의치 1개에 평균 2500엔(한화 약 2만5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1년 반 동안 모은 의치는 총 2만 5000개로 최근 국제 금값이 상승한 영향으로 모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생각을 처음하게 된 것은 의치 제작회사에 근무하던 미요시 이사오 씨로 "알고 지내는 치과의사가 '못 쓰게 된 의치를 그냥 버리려니 아깝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재활용협회를 세워 전국에서 의치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모유 수유 아동 지능지수 높다

모유 수유를 받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지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길대학 마이클 크라머 박사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모유 수유를 받았던 아동은 모유 수유를 받지 않았던 아동과 비교해 6세 때에 지능검사를 했을 때 6점 정도 높았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모유 수유를 받았던 아동 및 성인의 경우 사고력, 학습 및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과 지능 검사 지수가 높다고 발표했던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험에서 연구진은 모유 수유를 한 유아 7108명과 모유와 다른 음식을 병행 섭취한 유아 6781명을 비교해 이들이 6.5세가 됐을 때 표준 지능 검사를 받게 했다.

조사결과 모유 수유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 어휘력 점수는 7.5점, 비어휘력 점수는 2.9점, 전체 지능 점수는 5.9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머 박사는 "모유 수유가 어떻게 지능 지수를 증강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마도 모유 자체가 지능 지수를 증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엄마와 아기의 신체적 접촉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마주 앉아 나누는 교감의 교육적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부모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일해 기자

영덩이 주변 지방 당뇨병 막는다

인슐린 정상 회복 효과

영덩이 주변의 일부 피하지방이 당뇨병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메리 라코카 하버드의대 박사팀과 로날드 칸 조슬린 당뇨병센터 박사팀이 공동으로 '세포대사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따르면 영덩이 주변 등 신체의 일부 피하지방이 인슐린 수치는 낮추고 당노를 막아주는 '인슐린 민감성'은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방을 복부 깊숙이 이식한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쥐들이 운동이나 식사와는 무관하게 지방이식 후 체중이 줄고 자체적으로 존재하던 지방세포들이 퇴화했으나 복부피하층에 지방을 삽입한 쥐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쥐들은 혈당이 개선되고 인슐

린도 정상 기능을 하는 등 복부 외 다른 부위에 이 같이 지방을 이식할 때도 동일한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과거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이 당뇨병과 심장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영덩이 부위 지방은 오히려 이 같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영덩이 주변 피부 아래 피하지방이 이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날드 칸 박사는 "피하지방은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아디포킨(Adipokines)' 같은 특정 호르몬에 의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영덩이 피하지방에서 생산되는 성분을 확인해 이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해 기자

2살 이하 TV·비디오 시청

엄마와 언어 교감 차단

TV가 엄마와 1살 이하 영아 간의 언어를 통한 소통과 교감을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UPI 통신은 알란 멘델슨 뉴욕의대 박사팀이 '소아정신의학지'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TV나 비디오 등에 자주 노출된 영아들이 엄마와의 언어적 소통과 교감이 제한된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경제사정이 열악한 가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연구에 참가한 생후 6개월 된 아이들 중 97%가 하루 평균 2시간 가량 TV나 라디오 등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영아기를 비롯한 어릴적 부모와 아이 간의 교감이 향후 학습능력 향상과 청소년기 및 성인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데 중요하며 조기 소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TV가 이 같은 교감을 막을 수 있으므로 2살 이하 아이들에게 TV나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란 멘델슨 박사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한스포츠치의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ports Dentistry
www.sportsdent.com

마우스가드 제작 연수회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아파절, 악골 골절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 중 생기는 상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대비책이나 보호장비의 구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악구강계에 대한 건강관리와 그 인식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부족이 운동 중 생기는 외상을 동반한 부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치의학은 스포츠에 의한 외상과 상해를 예방하고 구강기능을 개선하는 것에 의한 스포츠 퍼포먼스의 향상, 건강유지를 위한 구강관리 등, 여러 면에서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현재와 미래의 치과의료입니다. 이번 실습세미나에서는 환자의 모형에 이용해서 vacuum former에 의한 방법과 라미네이트에 의한 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이를 곧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안창영
협찬 송진택(주)

스포츠 치의학회에 기업을 후원하는 분은 학회 홈페이지나 경희대 보건대학원 교육(충무인사) 02-559-9340~22로 문의 바랍니다.

일시 2008년 5월 31일(토) 오후 3시~7시
15:00~15:30 마우스가드의 역할
15:30~16:00 마우스가드 제작법 강연
16:00~18:30 실습

장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지하 4층 실습실

대상 치과의사, 기공사
인원 20명 한정
수강료 20만원(연수 후 수료증 지급)
연차 권공목 교수, 이우식 원장
실습인명 백진교수, 권태훈원장, 임영준교수
개인준비물 색연필, 치과용 석고조각도, 애반스 나이프
(교합기에 마운팅된 상하악 모형과 제작을 위한 재료 및 기기는 학회에서 제공)
입원/연락처 권태훈재무이사(스포츠치의학회) / 우리은행 1002-536-374515
연락처 신진택 (주)임당자 신봉희 02-757-6901
서울치대 보철과 교수 임영준(학술이사), 02-2072-2661, 2940